

# 의료기관, 폭행 위험에 노출돼

## 보안인력 배치·비상벨 설치 등 저조 발생원인 주취상태, 진료결과 불만 순 의료기관 이미지 고려해 신고에 소극적

### 정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대상 진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병원에서는 일반상해, 진료방해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했다.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했고, 외

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은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사회 이미지를 고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처벌하지 않은 비율이 처벌 비율보다 높았다. 병원의 경우 처벌 28.6%, 미처벌 71.4%였으며, 의원은 처벌 13.5%, 미처벌 86.5%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질환 진료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치료가 중요하나 발병 후 5년의 결정적 시기에 치료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 51.9%는 발병 후 초기 6개월 간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만성환자도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받을 수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를 해하거나 타인을 해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간·평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어 즉시 대응이 가능하나 야간·휴일에는 전문요원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했으며, 앞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 삼육대, 간호대학 승격 ... 새로운 원년 선언

### 초대 학장에 고명숙 교수

삼육대 간호학과가 단과대인 간호대학으로 승격했다. 1974년 학과 개설 후 45년만이다. 초대 학장으로 고명숙 교수가 임명됐다.

삼육대 간호대학은 간호대학 승격 기념식을 '새로운 원년을 시작하다!' 주제로 3월 28일 오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오덕신 부총장과 문혜숙 간호대학 총동문회장, 임지영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 신성례 국제간호협회 제3부회장(삼육대 교수) 등 내외빈과 교수, 동문, 재학생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 축하공연, 동문모임으로 진행됐다. 동문출신 교수 11명과 삼육서울병원 동문회, 대학원 학생회에서 간호대학 발전 기금을 전달했다.

고명숙 초대 간호대학장은 "오

늘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현장의 싹새 있는 간호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동문들의 관심과 지지, 열정 있는 학생들,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는 교수들과 대학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간호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건과 중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오덕신 부총장은 격려사에서 "간호대학이 삼육교육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수많은 학생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달라"며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간호인력을 양성하는 큰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육대는 1996년 석사과정, 2011년 박사과정을 개설해 교육자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간호전문직 교육기관으로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병원간호사회 '심장의 노래를 들려라' 공연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회원 복지증진과 문화적 감성 향상을 위한 '간호문화·복지세미나'로 창작뮤지컬 '심장의 노래를 들려라' 공연을 4월 12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160여명의 간호사들이 관람했다.

뮤지컬은 '몬스터'로 불리는 심장내과중환자실 7년차 간호사 맹수지가 말라버린 눈물과 심장을 되찾는 내용으로 간호사들의 삶과 돌봄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다. 문화기획 컬처트리플에서 공연했다.

공연을 관람한 간호사들은 "주인공을 통해 간호사의 삶을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힐링하는 시



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창작뮤지컬 '심장의 노래를 들려라'는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간호문화사업으로 추진한 창작뮤지컬 만들기 프로젝트에 의해 탄생했다. 2011년과 2012년 진행된 '잠미빛 인생 I·II'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이며, 2016년에 만들어졌다.

이진숙 기자 jslee@



## 자전거 종주로 암환자 후원금 전달

### 강북삼성병원 남자간호사회 자전거 종주팀

'암환자 돕기 자전거 종주'를 통해 온정을 나누는 남자간호사들이 있다. 강북삼성병원 남자간호사회 암환자 돕기 자전거 종주팀이 그 주인공.

2016년 가을 첫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한 3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동식, 김태우, 박남규, 조성훈, 한대영, 김수중, 김권수, 양태영, 이재혁 간호사가 함께 달렸다. 후원금 1685만원을 모아 올해 3월 20일 암환자에게 전달했다.

암환자 돕기 자전거 종주는 조성훈 간호사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9월 30일)을 기억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탔던 조성훈 간호사는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도전을 결심했고, 완주 거리 1km당 1000원의 기부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원 동료들이 함께 참여했고 자전거팀,

촬영팀, 차량팀 등이 꾸려졌다. 조성훈 간호사를 리더로 매년 팀을 구성해 도전하고 있다.

2016년 첫 종주 코스는 의정부에서 해남 평강마을까지 500km였다. 2017년에는 병원에서 출발해 한계령, 속초, 미시령을 거쳐 병원으로 돌아오는 500km를 달렸다. 2018년에는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강북삼성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삼성장원병원까지 500km 대장정을 마쳤다.

병원 남자간호사회, 신호철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간호본부 및 동료들이 후원금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조성훈 간호사는 "좋아하는 일을 통해 희망을 전하며 그 속에서 느끼는 보람이 기부의 원동력이 돼 준다"며 "앞으로도 매년 암환자를 돕기 위한 자전거 종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 게시판

### 노인간호학회 치매실무종사자 교육

한국노인간호학회(회장 김혜령)는 '치매실무종사자를 위한 치매교육'을 5월 11일 오전 9시 인제대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한다. '치매와 치매환자의 이해' '치매환자 및 가족과 의사소통' '치매환자의 포괄적 평가 및 증세'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 평가 및 간호중재' 등 주제 강연. 간호사 보수교육(8시간)으로 인정되며,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5월 3일까지 사전등록. 홈페이지(www.knursing.or.kr) 참조. 문의 이메일(kgns2019@naver.com).

### 중환자간호학회 학술세미나

한국중환자간호학회(회장 이영희)는 2019년 상반기 학술세미나를

'신속대응팀과 환자안전간호' 주제로 5월 17일 오전 9시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 히포크라테스홀(B동 9층)에서 개최한다. 환자안전 질 향상, 신속대응팀의 이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할 등이 다뤄진다. 간호사 보수교육(8시간) 인정 프로그램이며,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5월 10일까지 사전등록.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https://ksccn.jams.or.kr) 참조. 문의 02)2148-9931.

### 간호사 전용 열린콜센터

## 널스톡

1588-6282

## 마산대 간호학과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마산대 간호학과(학부장 정영숙)는 오민지 학생회장 외 1200여명의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2019학년도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지난해에 이어 지난 3월 2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캠페인은 학업과 실습의 스트레스로 메달라가는 분위기를 고려해 교수와 학생 간 상호 배려하고 소통하고자 기획됐다. 연간 캠페인으로 꾸준히 실시될 계획

이다. 인사를 먼저 받은 1학년 새내기 학생은 "처음에는 부끄럽고 낯간지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기 캠페인에 참여

했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종혜·이영실 학과장은 "캠퍼스의 아침이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로 가득 채워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정영숙 학부장은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통해 친밀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업의 원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환자용 모바일 앱 대구파티마병원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박진미)은 기존 환자용 모바일 앱에서 한층 더 고도화된 '대구파티마병원' 앱을 4월 15일 오픈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및 전자처방전 전송 기능'을 추가해 완성도 높은 원스톱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료 발급과 모든 진료 절차도 동시에 따라 맞춤형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2017년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가능한 스마트



#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